

# 사사건건 이견... 여야 임시국회 대충돌 예고

### 내일부터 시작... 개헌·공수처 설치·가상화폐 등 사안 엄중 한국당 대여 공세·전 정권 수사 맞물려 정쟁의 장 불보듯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헌, 사법 개혁, 국민안전·최저임금제 등 민생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2월 중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회는 회기 내내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개약’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립=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인 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는 ‘육상육’일 뿐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신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생정책 격돌=국민안전,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교육과 가상화폐 문제 등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를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의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

박스 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강남 집값 폭등, 가상화폐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정권 수사 정치 공방=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는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며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정세균 의장 개헌 토론회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사기관마다 다른 통합신당 지지율

〈국민·바른〉 1월 넷째주 꺾임 17%·리얼미터 12.7%... “조사방식 차이 탓”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할 ‘통합개혁신당’(가칭)의 지지도를 조사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26일 공개한 1월 넷째 주 조사에서 통합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7%를 기록, 현재 양당의 지지율 합계 12%보다 5%포인트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 대로라면 두 정당이 통합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셈이다.

갤럽은 이에 대해 “장담 준비 과정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존 정당은 기성 정치, 신생 정당은 새로운 정치의 프레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그 전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통합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2.7%에 그쳐 양당 지지율 합계 13.3%보다 오히려 0.6%포인트 낮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차이는 서로 다른 조사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갤럽은 100% 전화 면접방식을, 리얼미터는 90% 자동응답(ARS) 방식과 10% 전화 면접방식을 각각 사용한다. 이 중 전화면접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통상 유권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고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일정 비율로 섞는다. ARS의 경우 미리 질문을 녹음한 후 이를 전화로 들려주는 방식이다. 무작위 표본 추출이나 휴대전화·집 전화 조사 병행은 ARS도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 유권자들의 표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조사 방식에 따라 조사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28일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사이 보충’이 늘었다”며 “이들은 ARS가 아닌 전화면접에서 한국당을 지지하면서도 통합신당을 지지한다고 본심과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민주, 개헌 당론화 앞서 서면 설문

지방분권·사법개혁 등 6개 부문...오늘부터 결과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지는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객관식 문항 및 1개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26일 각 의원실에 우편식 원내대표의 친견과 함께 전달된 설문지는 29일 까지 수거된 뒤 분석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문지는 먼저 지방분권 확대를 헌법 총론으로 택하고 지방정부의 형태까지 헌법에 명기할지 여부를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을 어떤 수준으로 실현할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에 대한 조문을 폐기해 검사 외에 특정 자격을 가진 경찰(사법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또 기소법정주의 조문을 신설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평가할지 등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했다.

토지의 소유·처분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담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는다. 과도한 투기를 막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명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 중 선택하게 됐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됐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 선출 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재 방식을 별도의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절차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을 완화할지 여부, 재판에 법관뿐 아니라 국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들지 여부 등도 질문 항목 중 하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등) 개편 문제, 개헌과 연동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것은 설문에서 빠졌다.

# 文 대통령 청년 일자리 정책에 이용섭 출마 논란 일 듯

### 종합 대책 마련 재지시에 일정상 어려움 뒤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및 성과와 관련, 내각을 강한 어조로 질책한 것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불출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단, 정부 각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문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오는 2월까지 구체적 대책을 보고한다는 계획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실업 등 종합 대책은 3월 초·중순까진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용섭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가 선거 일정상으로도 불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종합 대책이 이르면 2월말, 3월 초순에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 부위원장 측이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2월 초순 출마 선언과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초 이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 주재 아래 열린 이번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끝낸 뒤 2월 초순께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광주

시장 출마에 나서는 것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과없이 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를 뒤로하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 등 여권 내부의 지지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섭 부위원장 측은 예정대로 2월 중에 광주시장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 측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질책은 내각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뿐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시장 출마는 늦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예능	음악 학 과	○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 형 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임학원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